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 Update

Derivatives Weekly | 2016. 4. 19

알파고와 핀테크의 만남인 로보 어드바이저는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음. 주요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데 자산배분이라는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시장 현황 중심으로 이를 점검했음



최창규 (파생/헤지펀드)

02)768-7600, gilbert.choi@nhwm.com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주소

알파고 열풍과 맞물리면서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로보 어드바이저는 전문업체와 금융권의 MOU 정도에 그쳤으나 이제는 구체화된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6개 은행과 10개 증권사가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보험사도 변액보험 고객을 타겟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준비 중이다. 조만간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헤지펀드도 등장할 예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에 이어 일본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확인되었으나, 우리보다 다소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는 밝은 편

아직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도입 기간이 짧아 트랙 레코드도 충분하지 않으며, 블랙박스인 자산배분 모델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편이다.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업체의 수익성 논쟁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는 밝은 편이라는 판단이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수익률 검증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적 온라인 투자문화도 로보 어드바이저 관련 시장환경에 긍정적인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고객의 수요확대이다. 이는 저렴한 수수료나 AI 시스템과 같은 포장기 아니라 투자 수익률로부터 창출될 것이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로보어드바이저 활용방법	고객 (자문형)	금융회사 (일임형)
Back Office 에서 활용	(1 단계) 자문인력이 RA 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2 단계) 운용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Front Office 에서 활용	(3 단계) RA 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	(4 단계) RA 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원회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1. 알파고가 당긴 화살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사는 무척 짧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핀테크의 확산이 먼저였다. 그리고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목 받게 된 것이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넓게 쓰이는 정의는 알고리즘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산관리를 통해 1) 저렴한 수수료, 2) 투자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3) 객관적인 평가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이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시 한번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황을 점검하고 간단하게나마 미래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의 출발점인 미국의 경우는 **Betterment**, **Wealthfront**와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Vanguard**, **BlackRock** 등 글로벌 운용사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GoldmanSachs**가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Honest Dollar**를 인수하며 서비스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Fidelity**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Fidelity Go**를 오픈한 것으로 파악된다. **BOA**도 자체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표 1.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기관	서비스 내용
Vanguard	2013년부터 "Vanguard Personal Advisor Service" 제공
Charles Schwab	2015년부터 "Schwab Intelligent Portfolios" 서비스 오픈
Black Rock	2015년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Future Advisor" 인수
Deutsche Bank	2015년 핀테크 기업 핀사이트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개발
Goldman Sachs	2016년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Honest Dollar" 인수
Fidelity	2016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Fidelity Go" 오픈
BOA	2016년 자체개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오픈 예정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언론보도 종합

2) 아시아의 로보 어드바이저

미국에서 시작된 로보 어드바이저는 지난해에 아시아로 건너왔다.

2015년 4월, 홍콩의 8 Securities는 저렴한 수수료와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8 NOW! 서비스를 시작했다. 5월에는 일본 서비스를 시작하며, 일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도화선이 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일본 대형 금융회사도 로보 어드바이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Mizuho의 SMART FOLIO와 Mitsubishi의 PORT STAR가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아직은 은행이 중심이다. 그리고 온라인 증권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준비 중이다. 마넥스증권은 ANSWER 서비스를 올해 시작했고, 라쿠텐증권은 하반기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오픈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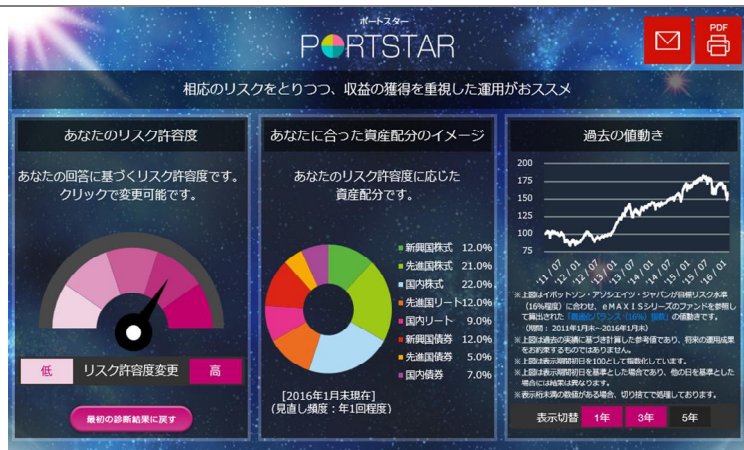
다른 아시아 국가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찾기 힘들었다.

그림 1. 8 NOW!



자료: 8 NOW!

그림 2. Mitsubishi 의 PORT STAR



자료: Mitsubishi

2.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주소

그렇다면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원년은 2016년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업체와 금융권의 MOU가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상품은 없었다. 일종의 워밍업 기간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거나 검토 중에 있다.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주소를 파악했다.

1)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업체

현재 국내 대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로는 퀴터백, AIM, DNA, 디셈버, 밸류시스템, 파운트 등이 있다. 조금씩 로직의 차이가 있으나 투자자 성향을 고려해 알고리즘 베이스의 자산배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최근에는 자문업 라이선스를 획득해 여러 금융기관들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금융권과 가장 활발히 제휴하고 있는 퀴터백의 경우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도 진행 중으로 보도되고 있다.

표 2. 주요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

업체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사 등록, 금융권과 가장 활발한 MOU로 상품출시 -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형 서비스 Get Aim 베타 서비스 운용중.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 오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은행 주관 퓨처스랩 2기 소속 벤처기업 -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우증권, 펀드슈퍼마켓 등과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사 등록 업체, 자산관리 서비스인 ISACC 운용 - NH, 대우, 현대 증권 등과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사 등록 업체로, 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서비스 I-ROBO 운용 - 대우, 동부, 신한, 한국투자, 현대 등 여러 증권사와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F 자산배분 제공.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과 MOU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각 회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2) 은행의 로보 어드바이저

은행권 최초의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은 올해 1월 국민은행과 퀴터백이 제휴해 출시한 신탁 상품 ‘퀴터백 R-1’이다. ‘퀴터백 R-1’은 투자자 성향에 맞도록 ETF를 통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 모든 대형 은행들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7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11일부터 기존 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권에 ISA에 한해 일임형 상품이 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로보 어드바이저와 일임형 ISA를 접목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파운트’와 제휴를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일임형 ISA 상품을 도입했다. 또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ISA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표 3. 은행권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명	기관	내용
 로보어드-알파	로보어드-알파	우리은행
로보어드-알파	우리은행	- 파운트와 제휴한 '로보어드알파' 출시, ISA에 접목가능
 퀴터백 R-1 [KB국민은행 자문형 신탁]	퀴터백 R1	국민은행
퀴터백 R1	국민은행	- 은행권 최초로 퀴터백과의 MOU로 자문형 신탁상품 '퀴터백 R1' 출시
 CYBER PB	사이버 PB	KEB 하나은행
사이버 PB	KEB 하나은행	- 2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서비스인 '사이버 PB' 출시, ISA에 초점
 신한은행 SHINHAN BANK	S로보 플러스	신한은행
S로보 플러스	신한은행	- 4월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펀드 추천 서비스 'S로보 플러스' 출시, DNA와 제휴
	-	기업은행
-	기업은행	- 4월 파운트와 제휴한 일임형 ISA 상품 출시
 NH농협은행	-	농협은행
-	농협은행	- 7월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 오픈 예정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언론보도 종합

3) 증권사의 로보 어드바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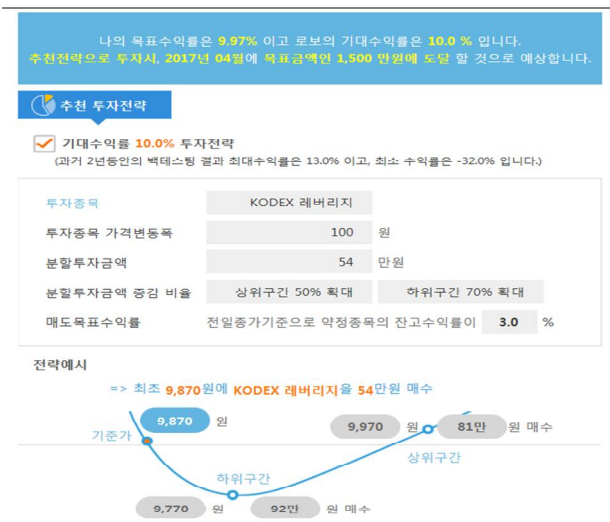
증권업계 최초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NH투자증권의 'QV 로보 어카운트'이다. 기존 시스템 분할 매수, 매도 서비스인 Smart Investor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산배분 상품은 아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산배분 형태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쿠퍼백과 함께 ARS 형태의 상품판매도 준비 중이다.

자산배분 컨셉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지난 3월 대우증권이 처음 선보였다. 작년부터 활발하게 여러 업체들과 MOU를 맺어오던 대우증권은 고객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마켓'을 오픈했다. 현재는 디셈버앤컴퍼니, 밸류시스템, 씨미트, 쿠퍼백 4개의 업체와 함께 7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 역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와 제휴한 자산배분 컨셉의 일임형 랩상품을 이미 출시했다.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유안타증권의 경우 HTS를 통해 'tRader' 서비스를 통해 추천 종목 및 매매 타이밍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신증권은 고객 성향에 따른 펀드, ELS 등 상품을 추천해주는 '대신 웰스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오픈했다.

최근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오픈한 곳은 삼성증권이다. 현재 시장 상황과 과거 10년간의 상황을 분석해 투자성과를 검증하는 '삼성POP Robo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보였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의 헤지펀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림 3. NH 투자증권의 QV 로보 어카운트



자료: NH 투자증권 홈페이지

그림 4. 유안타증권의 tRader 2.0



자료: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표 4. 증권사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명		기관	내용
	QV 로보 어카운트	NH	- 'QV 로보 어카운트' 출시, ETF 분할매수 전략인 스마트인베스터 기반으로 자산배분 컨셉은 아님 - 자산배분형태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자체개발중
	로보 어드바이저 마켓	대우	- 퀴터백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상품 출시 -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마켓' 오픈
	현대 able 로보랩	현대	- 퀴터백, 밸류시스템과 연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랩인 '현대 able 로보랩' 출시
	삼성 POP 로보어드바이저	삼성	-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 관련 특허를 이용한 '삼성 POP 로보어드바이저' 출시
	신한명품 로보랩	신한	- 밸류시스템투자자문과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랩인 '신한명품 로보랩' 출시
	tRADER	유안타	- 종목 추천 및 자동매매가 가능한 'tRader' 서비스 출시
	대신 웰스 어드바이저	대신	-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대신 웰스 어드바이저' 출시
	아이로보 알파	동부	- 밸류시스템과 연계한 일임형 상품인 '아이로보 알파' 출시
	한국투자 로보랩	한국	- 퀴터백, 밸류시스템, 디멘전과 연계, 일임형 랩인 '한국투자 로보랩' 출시
	-	키움	- 로보 어드바이저 자체 시스템 개발 진행중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언론보도 종합

4) 운용사와 보험사의 로보 어드바이저

증권사와 은행보다는 한 박자 느리지만 자산운용사들 역시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 및 검토하고 있다. 자체 시스템 혹은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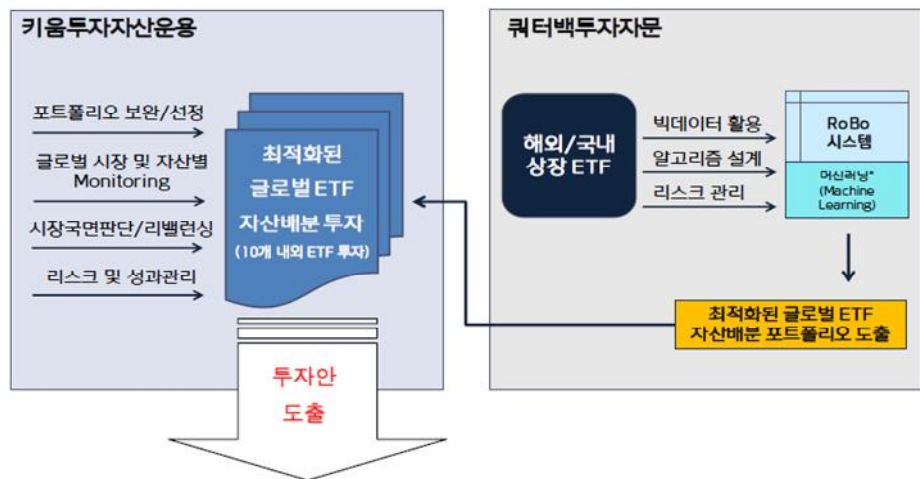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운용사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다. 퀴터백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ETF 자산배분 공모펀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출시 예정일은 4월 중이다. 또한 한화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도 자산배분 형식의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자산운용사의 로보 어드바이저

한투운용	글로벌 자산배분 형태의 상품 준비
대신자산	로보 어드바이저 부문 신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혼합형,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 출시 예정
삼성자산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 알고리즘 개발중. 카카오톡 연계 ETF 투자 솔루션 상반기 출시 예정
미래에셋자산	자체 ETF 활용한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 알고리즘 개발 완료, 합병 이후 고객 서비스 시작
KB 자산운용	멀티솔루션본부 신설. 자산배분 알고리즘 개발중
신한BNP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위한 TFT 구성
한화자산	자산배분 솔루션 개발 준비중
KTB 자산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KTB 시스템트레이딩 펀드' 운용
키움자산운용	퀴터백과 제휴, 글로벌 ETF 자산배분 컨셉의 펀드 4월 출시 예정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언론보도 종합

그림 5. 키움 퀴터백 글로벌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의 투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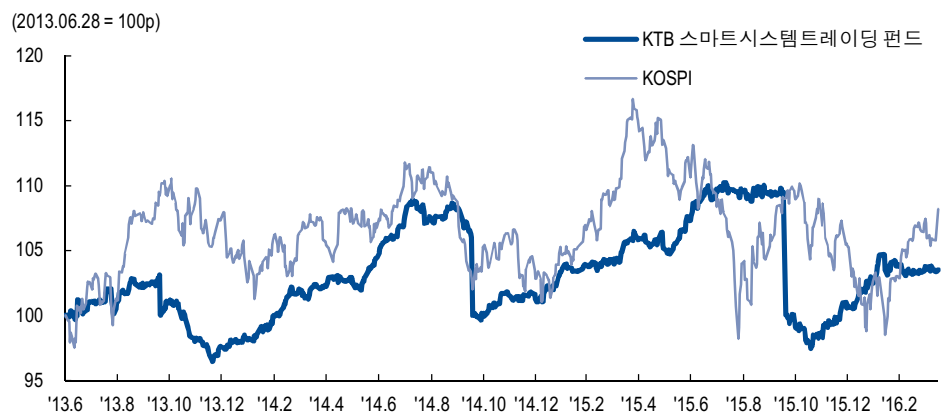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편 로보 어드바이저의 인기와 함께 기존 시스템트레이딩 펀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KTB스마트시스템트레이딩 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2015년 하반기 부진했던 KOSPI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시스템트레이딩 펀드에 빅데이터 분석 등이 가미된 액티브퀀트 스타일의 자산배분 펀드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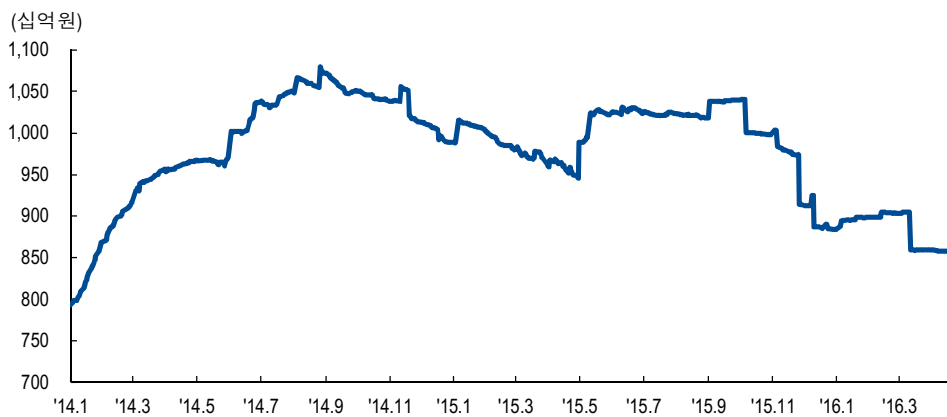
아직 보험사의 경우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한 회사는 없으나, 변액보험 가입고객의 자산배분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림 6. KTB 스마트시스템트레이딩 펀드 기준가 추이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nGuide, FnSpectrum

그림 7. 자산배분형 펀드 설정액 추이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nSpectrum

3. 결론, 한국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는 밝은 편

로보 어드바이저의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주요 금융기관에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면 장밋빛 미래가 곧 펼쳐질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만만치 않다.

1) 로보 어드바이저의 한계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무기는 저렴한 수수료이다. 또한, 경쟁심화로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지만 업체가 많아질 수록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Betterment와 WealthFront의 운용 수입이 그들의 고정비를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자동화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제한적일 수 있다. 고객의 성향을 온라인으로 체크하는 방식은 경우의 수가 한정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파악한 고객 성향의 진실성도 고민해 봐야한다. 따라서 PB 서비스의 대중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세한 고객의 니즈까지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자산배분 모델이 블랙박스라는 것도 심각한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업체들의 자산배분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리밸런싱에도 해당한다.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에 따라서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사가 1년이 되지 않아 트랙 레코드가 짧거나 없다는 부분이다. 과거 데이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업체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기가 도래한다면 어떻게 자산배분 모델이 반응할지도 점검 포인트이다.

표 6.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우려

업체의 BEP 문제	낮은 수수료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지만, 서비스 업체의 BEP 달성이 쉽지 않음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 진단 가능한 고객의 성향은 가지수가 한정적이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음
블랙박스 알고리즘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의 알고리즘이 블랙박사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불가능함
짧은 트랙 레코드	트랙 레코드가 짧기 때문에 로보 어드바이저의 업체에 대한 전략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어려움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

이러한 우려들 속에서도 단기적인 로보 어드바이저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금융사들과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지속적인 상품출시와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부터 신한은행은 쿼터백, DNA, 파운트 등의 업체에 대해서 2개월간 수익률과 성과를 직접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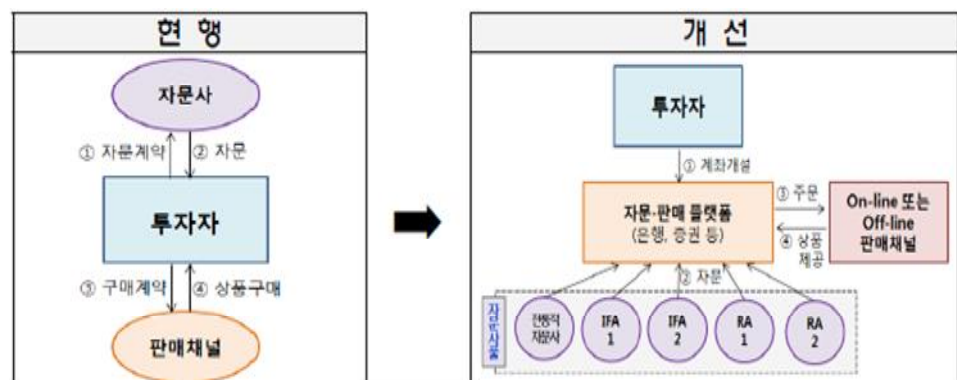
또한 정책적인 뒷받침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 확산 방안 중 하나로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발표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대면계약 체결 의무 조항에서 온라인 계약 허용과 자문과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One-Stop 서비스가 핵심이다. 해당 내용은 3월 24일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온라인 자문과 일임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완료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4월 7일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관계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7월말부터 3개월간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검증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온라인 자문과 일임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3개월이라는 테스트베드의 운용은 로보 어드바이저 검증에 부족하다. 그렇지만 로보 어드바이저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열렸다는 부분에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듯 금융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은 로보 어드바이저 붐을 잘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수요이다. 그리고 고객의 수요 확대는 저렴한 수수료와 AI 시스템과 같은 포장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로부터 창출될 것이다.

결국, 금융업계 역시 마케팅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 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배분 모델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자문, 판매 One-Stop 서비스



자료: 금융위원회

NH 투자증권 파생충동 발간 목록

	종류	작성자	제목
2013-01-1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뱅가드 EM ETF 이슈
2013-01-30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ETN(상장지수채권)
2013-02-2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국부펀드와 퇴직연금
2013-03-1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NHN의 기업분할
2013-03-27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KOSPI 200 종목 변경
2013-04-1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SRI의 모든 것
2013-05-1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합성 ETF의 기초자산 시리즈 1탄
2013-05-2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합성 ETF의 기초자산 시리즈 2탄
2013-07-25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인덱스펀드가 기업분할 이벤트에 대응하는 방법
2013-09-1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중위험/중수익 상품
2013-10-0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CB 투자방법
2013-11-1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3년 연말배당
2013-11-25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연금의 Focus-List
2013-11-2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비트코인 차익거래
2014-01-0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4년의 New 파생상품들
2014-01-27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구원투수(세제혜택 투자상품)의 등판
2014-02-2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스마트베타(Smart-Beta)의 모든 것
2014-04-1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4년 KOSPI 200 정기변경
2014-04-2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실망을 안겨준 2013년 KOSPI 200 연말배당
2014-05-1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펀드슈퍼마켓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2014-05-2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보호예수(Lock-Up)
2014-05-30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2014년 KOSPI 200 정기변경 확정
2014-07-21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블랙기업(Black Corporation)과 SRI
2014-09-15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현/선물 시장 제도 개편
2014-09-2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와 ELS 인덱스펀드
2014-09-29	이슈분석	최창규	Derivatives Weekly - 삼성 SDS는 'K-OTC'에서 미리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2014-11-17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이(E)제 투(T)자해야 내(N)일이 있다, ETN
2014-11-2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올해 KOSPI 200의 연말배당은 얼마나 늘어날까?
2014-12-22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글로벌 울트라(Ultra) ETF와 중국 본토 ETF 정리
2015-03-16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M&A에 참여하는 간단한 방법, 스팩(SPAC)
2015-06-0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Mini 선물
2015-07-1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KTOP 30 활용 방법
2015-08-03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스팩(SPAC), 될 수 밖에 없는 시장
2015-10-14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기계적 자산배분,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2015-10-2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와 무한경쟁 예고
2016-03-28	이슈분석	최창규	최창규의 파생충동(派生衝動), LP제도에 따른 시장 변화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